

# 그림책 읽기

그림책 읽기는 아이에게 취학 전  
여러가지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자주 읽어 주느냐 하는 것 만큼  
중요하다.

아이들은 책의 내용과 관련을 맺고 직접 해 보면서  
더 많은 것을 책에서 배운다.

대화체식 독서법이 바로 아이로 하여금 내용과  
관련을 맺으며 직접 참여하게도 하는 방법이다.

오늘의 프로그램의 목적은 당신이 아이에게  
어떻게 그림책을 같이 보며 깊게 관련되고  
파트너가 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다.

# 대화체식 독서법: “무엇” 이라는 질문들

“무엇” 이라고 질문한다.

질문의 답을 반드시 확인해 준다.

아이가 대답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본다.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할때 돕는다.

칭찬하고 격려한다.

아이의 관심의 대상을 주의해서 관찰하고 반드시  
답해 준다.

# 대화체식 독서법: 자유 해답식의 질문들과 확장

## (1) 그림들에 관한 자유 해답식의 질문들

아이가 그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면, 말로 설명하고 따라하게 한다.

아이가 자유 해답식의 질문들에 익숙해지면 조금  
더 많이 말을 해보게 한다.

## (2) 아이가 말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부모는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 말고 짧고 간단하게  
해야 한다.

부모가 확장한 긴 문장을 아이에게 따라하게 한다.

# 대화체식 독서법: “무엇”이라는 질문들

아이와 그림책을 같이 읽는것은 아이로 하여금 좀더 많은 단어를 그림과 맞추어 가며 보면서 기억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책을 처음으로 읽어주기 전에 당신이 먼저 책을 읽어 보아야 한다. 처음으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때는 당신 혼자 다 읽되 아이가 모르는 것들의 이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한다. 두번째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경우에는 당신이 지적인 이름이나 그림들에게 다음과 같이 해야한다.

- “무엇 이지?” 라고 질문한다.  
책에 나와있는 물건을 가르키며, “무엇이지?” 혹은 “무엇이라고 부르지?” 한다. 아이가 “네” 혹은 “아니오” 또는 손가락으로 가르키면서 대답할수 있는 질문은 피한다.
- 답을 줄때 또한 질문형식으로 답을 준다.  
아이가 물건의 이름을 알아 맞추면 그 물건에 관해서 또 물어본다. 예를 들면, “이 트럭 색깔이 무엇이지?”, “트럭의 이 부분은 무엇이라고 하지?”, “지금 이 강아지는 무엇을 하는거니?”, 혹은 “이 대접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지?”
- 아이가 말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한다.  
당신이 답을 반복해 줌으로써 아이로 하여금 아이의 답이 맞은 것을 확인시켜 준다: “그래, 맞아. 그것은 소야.”
- 필요할때마다 아이를 도와준다.  
아이가 만일 올바른 답을 모른다면, 바른답을 가르쳐 주고 아이에게 그 답을 따라해보게 한다.
- 칭찬해 주고 격려해준다.  
아이가 잘 할때는 이런말들을 해 준다. “맞아!” 혹은 “맞았어. 잘했어!”
- 아이의 관심을 잘 살피고 그것을 잘 가르쳐준다.  
아이가 만일 한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말로 하거나 혹은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면 곧바로 아이에게 그것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아이로 말해보게 한다.
- 좋은 시간을 가져라.  
독서하는 시간이 재밌는 게임시간같이 되게 만들어라. 이 방법중의 하나는 책을 그냥 읽다가 또 질문식으로 바꾸는 시도를 해본다. 예를 들면, 부모가 한 장을 읽고 그 다음 장은 아이로 하여금 이야기 해 보게 한다. 아이의 집중력이 짧음을 잊지말고 잘 고려한다. 재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 대화체식 독서법: 자유해답식 질문들과 확장

이제 무엇이라는 질문을 아이에게 해 보았을 것이다. 이제는 좀더 다른 질문들로 해서 아이가 여러가지 답을 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이에게 긴 문장으로 자신의 얘기를 설명하게하기 위해서 먼저 아이의 대답을 가지고 그것에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하여 아이가 자기가 보는 그림이 긴 문장으로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 배우게 한다.

- 자유 해답식의 질문들을 묻는다.

아이와 같이 그림책을 볼 때는 계속하여 질문들을 하여 아이가 말을 하여야 함에 익숙해 지게 한다. 이제는 단순히 “무엇이지”하는 질문을 하지 말고 자유 해답식의 질문들을 하여 한 마디의 답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해본다. 예를 들면, “여기 이 페이지에는 무엇이 있지?” 혹은, “여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 필요할때 도와준다.

아이가 어떤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무언가 아이에게 말해준다. 아이에게 부모가 한 말을 따라해보게 한다. 예를 들면, “오리가 수영을 한다. 자 이제 니가 말할 차례야. ‘오리가 수영을 한다.’”

- 아이에게 좀더 자세히 말하게 해본다.

아이가 이제 자유 해답식 질문들에 익숙해 지면, 아이에게 좀더 자세히 말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질문을 해본다. 예를 들면, “또 무엇이 보이지?”

- 아이가 설명한것을 좀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준다.

아이가 그림에 대해서 무언가 말하면, 칭찬해주고 조금더 자세히 설명을 덧붙인다. 예를 들면, 만약 아이가 “강아지가 짖어.” 라고 말하면,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맞아. 강아지가 고양이를 보고 짖네.” 이런식으로 아이가 생략한 그림의 얘기들을 조금씩 끼어 맞추어 끝낸다. 다 끝낸 뒤에 가르쳐준 새 정보를 다시 아이에게 물어본다. “강아지가 누구 때문에 짖지?”

- 당신의 확장을 짧고 간단하게 한다.

반드시 아이가 한 대답 위에 부모의 설명을 조금 추가함으로써 아이가 부모의 대답을 모방할 수 있게 해야한다.

- 아이로 하여금 반복하게 한다.

아이로 하여금 부모의 긴 말을 따라 하도록 계속적으로 격려하면, 아이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말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